

[이슈]

제4차 산업혁명과 중소형주

중소형주 Better Than Yesterday

2017/09/18

- 여타 산업혁명과 마찬가지로 제4차 산업혁명의 최종귀착점은 전세계 인류의 Better Than Yesterday
- 문재인 정부의 신성장동력 정책은 제4차 산업혁명
-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예정으로 범부처 종합대책 마련될 듯 ⇒ 중소형주 상승 모멘텀

지난 8월 16일 국무회의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심의/의결했으며 근시일안에 위원회 설치를 완료하여 2017년 말까지 제4차 산업혁명 대응 범부처 종합대책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함에 따라 중소기업과 혁신 창업 기업 육성할 예정으로 연구 개발을 위해 기초연구에 장기 투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하여 민간의 부동자금을 벤처기업 지원으로 끌어 들일 수 있도록 엔젤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기술집약적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기존의 기술금융체계를 보다 발전시키는 한편 자본시장의 역할이 보다 강화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한편, 중소형주의 경우 정부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데, 문재인 정부의 신성장동력 정책은 제4차 산업혁명 이기 때문에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이 구체화 될 때 즉, 제4차 혁명위원회가 설치될 때 중소형주의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중소형주의 미래 성장동력 가치에 대하여 높은 밸류에이션 적용이 가능할 것이므로 관련 종목들의 주가 상승이 예상된다.

■ 투자 유망 중소형주

지니뮤직(043610): 지니야 음악 틀어줘
 ISC(095340): 소켓 실적 턴어라운드에 자율주행 성장성을 더하다
 유니퀘스트(077500): 이제부터 자회사들이 효자 효녀
 테크윙(089030): 전방산업 호조 및 자회사 실적 점프업
 디아이(003160): 싸이는 가고 실적이 온다
 한신기계(011700): 공장자동화 수혜 및 주주친화정책 강화

Analyst 이상헌

(2122-9198)

value3@hi-ib.com

조경진

(2122-9209)

kjcho@hi-ib.com

I.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

■ 여타 산업혁명과 마찬가지로 제4차 산업혁명의 최종 귀착점은 전세계 인류의 Better Than Yesterday

제4차 산업혁명의 경우도 어찌 보면 실체가 없을 수도 있고 단지 제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새로울 게 없을 수도 있다. 진정 그렇다라고 해도 현재시점에서는 긍정적인 사고 환경하에서 모든 상상력(想像力)을 발휘하여 미래를 꿈꿔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그래야지만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산업혁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술 발전의 역사를 살펴보면 과거에도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이런저런 반발이 있었지만,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상상력(想像力)이 현실이 되곤 한다. 기술은 인류의 삶을 보다 행복하고 편안하게 해 줄 것이라는 약속 하에서 발전해왔는데, 다시 말해서 인류(고객)의 가치를 증진시켜야지만 기술이 발전하는 것이다.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로 인하여 제품 및 서비스가 등장하는데, 투자관점에서 보면 없었던 것이 새로 등장하게 되면 가치 증분이 크게 일어날 수 있으므로 투자수익률이 극대화 될 수 있다. 여기에서 가장 큰 전제(前提)는 새로운 기술로 인한 제품 및 서비스가 과연 고객의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겠는가 이다.

따라서 제4차 산업혁명의 무수히 많은 신기술과 패러다임을 어떻게 융합할지를 견인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고객의 가치 증진에 있다. 가령 제4차 산업혁명에서는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BigData), 인공지능(AI) 등 혁신적인 기술의 발전은 소비자의 행동방식을 변화시키고 이에 따라 신규시장이 출현하거나 산업이 진화되면서 재편이 가속화 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혁신은 단순한 생산성 증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물건을, 적은 인력으로, 빨리 만들어서 고객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기업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특히 기술적 혁신에 의한 산업혁명은 기존에 없었던 것이 새로 출현하여 사회 및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주식들은 상승을 넘어 항상 버블까지 조성되었다. 다시 말해서 혁신동인이 증기기관인 제1차 산업혁명에서는 철도버블을, 전기발명인 제2차 산업혁명에서는 자동차 등 다우산업지수 버블을, 컴퓨터, 인터넷 등이 등장한 제3차 산업혁명에서는 닷컴버블을 촉발시켰다.

제4차 산업혁명의 경우 지능정보기술이 과거 기계가 진입하지 못한 다양한 산업 분야에 기계가 진입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산업 구조의 대대적 변화를 촉발함에 따라 경제 및 사회 전반의 혁명적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무수히 많은 신기술과 패러다임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곧 변화에 대한 변곡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므로 투자환경이 어느 때 보다도 좋을 수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은 투자자에게는 기회이자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여러 가지 환경 등의 변화로 인하여 기존 틀에서 벗어나서 수 많은 요소를 고려하여 투자를 해야 하므로 기회 뿐만 아니라 리스크 또한 증가하기 때문이다. 주식투자 관점에서 보다 분명한 점은 신기술 및 패러다임으로 고객의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해야지 투자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즉, 제4차 산업혁명의 무수히 많은 신기술과 패러다임을 어떻게 융합할지를 견인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고객가치의 향상이다. 결국에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 관련 주식가치는 고객의 가치를 얼마나 많이 증진시킬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이다.

<표 1> 산업혁명의 발전단계 특징 및 정의

구분	연도	특징	정의
1차 산업혁명	1784년	- 증기 및 수력 기관 - 기계식 생산설비	- 가축, 인력 등 생물자원에서 화석 연료 사용 및 기계 사용이 가능한 기계적 혁명 - 영국이 최대 공업대국으로 부상
2차 산업혁명	1870년	- 전기사용 - 분업과 대량 생산	- 컨베이어시스템, 전기 등을 통한 대량생산체계 구축 -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의 지위 구축
3차 산업혁명	1969년	- 전자기기, IT - 자동화 생산과 인터넷	- 정보의 생성·가공·공유를 가능하게하는 정보기술시대의 개막
4차 산업혁명	?	- 사이버물리 시스템(CPS)	- 디지털, 물리적, 생물학적 영역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기술이 융합되는 새로운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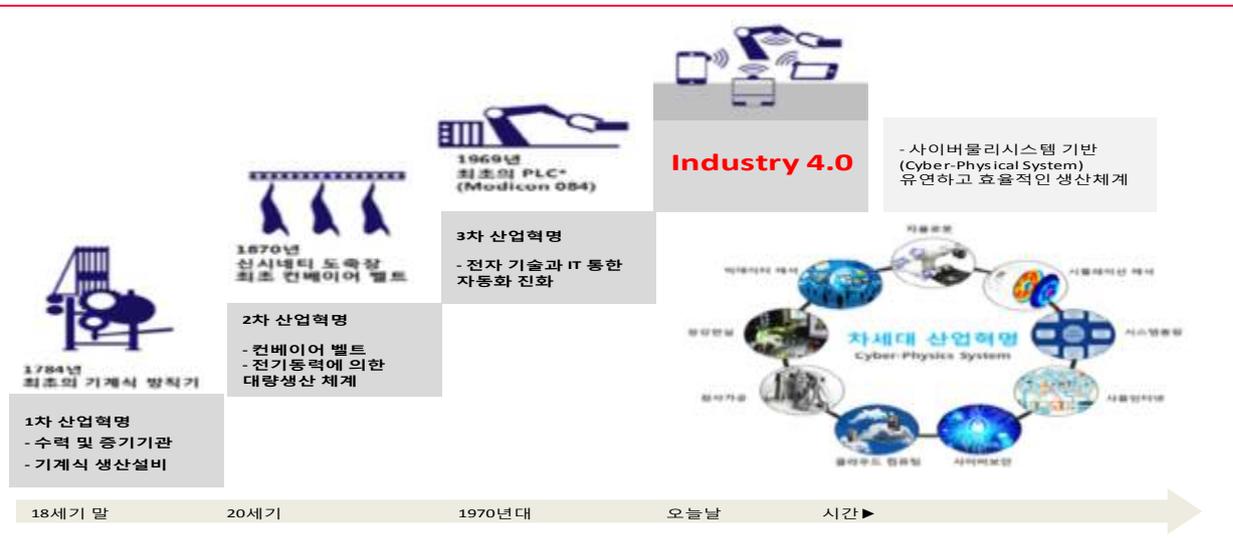
자료: World Economic Forum, 하이투자증권

<표 2> 제 4 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

기술	내용
사물인터넷 (IoT: Internet of Things)	- 사물에 센서를 부착하여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네트워크 등으로 주고받는 기술 - 인간의 개입없이 사물 상호간 정보를 직접 교환하며 필요에 따라 정보를 분석하고 스스로 작동하는 자동화 (예시) IoT+AI+빅데이터+로봇공학=스마트 공장(CPS)
로봇공학	- 로봇공학에 생물학적 구조를 적용함에 따라 더욱 뛰어난 적응성과 유연성을 갖추고 정밀농업에서 간호까지 다양한 분야의 광범위한 업무를 처리할만큼 활용도가 향상
3D 프린팅 (Additive manufacturing)	- 입체적으로 형성된 3D 디지털 설계도나 모델에 원료를 층층이 겹쳐 쌓아 유형의 물체를 만드는 기술로 소형 의료 임플란트에서 대형 풍력발전기까지 광범위하게 응용 가능 (예시) 3D프린팅+바이오기술=인공장기
빅데이터 (Big Data)	-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형태의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간의 행동패턴 등을 분석 및 예측하고 산업현장 등에서 활용하면 시스템의 최적화 및 효율화 도모 가능 (예시) 빅데이터+AI+금융정보=투자 로봇어드바이저 빅데이터+AI+의학정보=개인맞춤형 헬스케어
인공지능 (AI)	- 컴퓨터가 사고, 학습, 자기계발 등 인간 특유의 지능적인 행동을 모방할 수 있도록 하는 컴퓨터공학 및 정보기술 - 다양한 분야와 연결하여 인간의 업무를 대체하고 그 보다 높은 효율성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 (예시) AI+IoT+자동차=무인자율주행자동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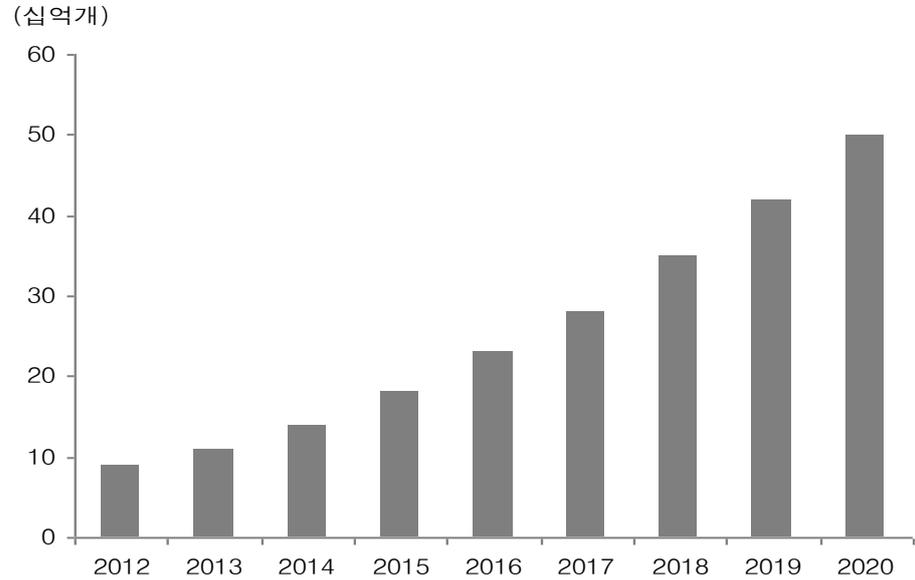
자료: World Economic Forum, 하이투자증권

<그림 1> 기술변화에 따른 산업혁명 단계



자료: NIA, 하이투자증권

<그림 2> 인터넷과 연결된 사물(Connected objects)의 수 증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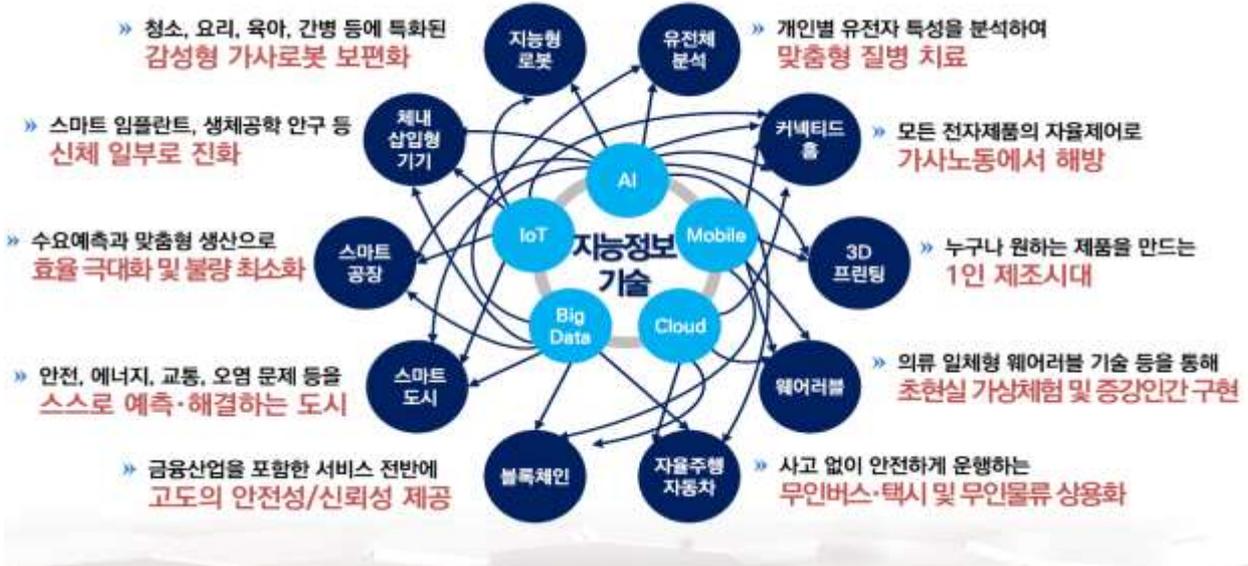
자료: The Internet of Everything in Motion(Cisco 2013), 하이투자증권

<그림 3> 제 4 차 산업혁명 및 지능정보기술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하이투자증권

<그림 4> 지능정보기술과 타 산업/기술의 융합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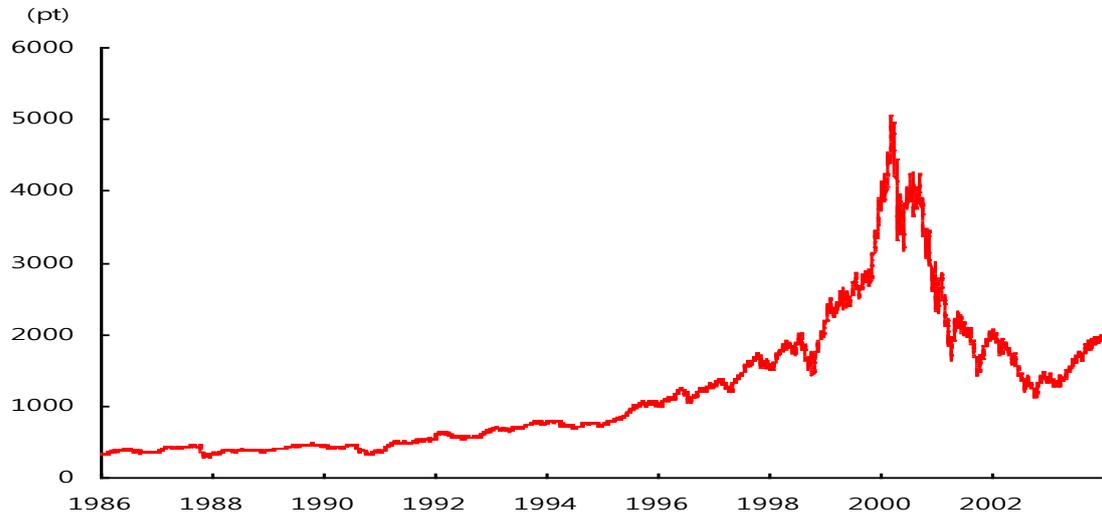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하이투자증권

<그림 5> 1920년부터 1929년 9월까지 다우산업지수 216%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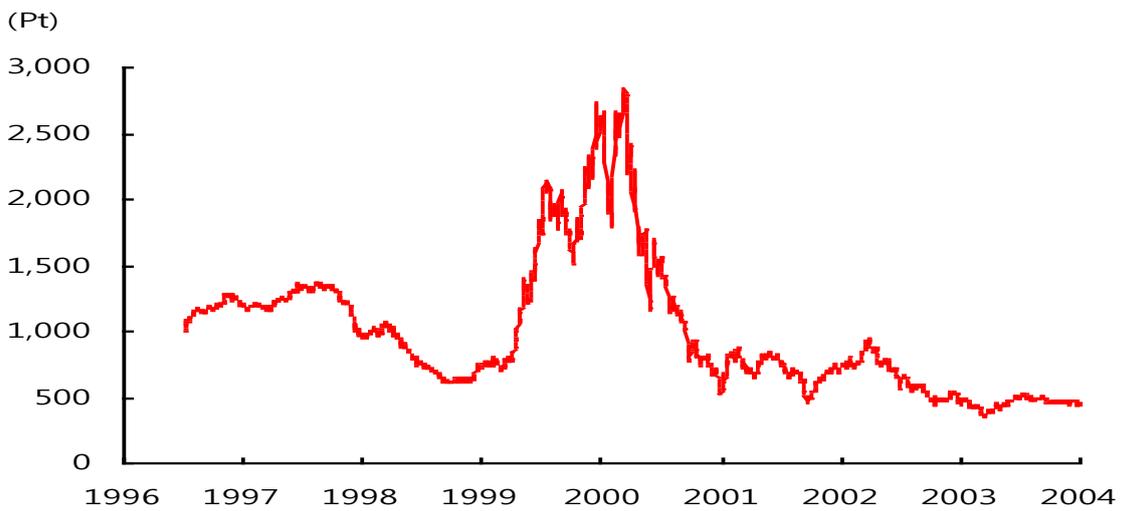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이투자증권

<그림 6> 1990년부터 2000년 3월까지 나스닥 지수 990% 상승



자료: Bloomberg, 하이투자증권

<그림 7> 1999년 2월 24일~2000년 3월 10일까지 코스닥 지수는 300% 가까이 급등



자료: Bloomberg, 하이투자증권

II. 중소형주 패러다임 변화 속으로

■ 문재인 정부의 신성장동력 정책은 제4차 산업혁명

제4차 산업혁명 시대적 흐름에 뒤쳐지는 국가나 기업은 미래 성장동력을 상실할 것으로 우려되면서 이를 뒷받침할 정책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성장이 정체되어 가는 전통산업의 재도약과 더불어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기 위한 신성장 동력으로 제4차 산업혁명이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기간 동안 최대 화두가 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성장 동력 정책인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주요 공약으로 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과 스마트코리아 구현, 혁신 창업국가 구현, 제4차 산업혁명의 기반인 ICT 르네상스 실현,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 및 육성 등을 제시하였다. 이는 곧 혁신적 경제 생태계 구축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국정과제로는 소프트웨어 강국 및 ICT 르네상스로 제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 및 육성,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청년과학자와 기초연구 지원으로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 및 육성,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로 산업경제의 활력 회복 등을 제시하였다.

먼저 소프트웨어 강국 및 ICT 르네상스로 제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에는 5G 및 IoT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데이터 개방 및 유통 활성화, 스마트홈/정밀의료 등 ICT융합 서비스 발굴 및 확산 등이 있다. 이에 대하여 2017년 IoT 전용망 구축, 2018년 10기가 인터넷서비스 상용화, 2019년 5G 조기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 및 육성의 경우는 전기차/수소차 획기적 보급 확대, 자동차-ICT융합 플랫폼 구축 등 스마트카 개발 및 자율주행차 산업 육성 뿐만 아니라 지능형 로봇, 3D프린팅, AR/VR, IoT가전, 스마트선박, 나노/바이오, 항공/우주 등 첨단기술 산업 육성을 위해 R&D 및 실증/인프라 구축 지원 등이 있다. 또한 제약/바이오/마이크로의료로봇 등 의료기기 산업 성장 생태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표3>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4차 산업혁명

구분	국정운영 5개년 계획 中 4차 산업혁명('17.7)
목표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주체	4차 산업혁명위원회
핵심수단	ICT + 과학기술 중심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 융합 확산 - 역기능 대응
정부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 과학 기술 컨트롤타워 강화 - 행정 효율화 - 소통 강화
생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 육성 □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 육성 □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로 산업 경제의 활력 회복 □ 청년과학자와 기초연구 지원으로 과학기술 미래역량확충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 인프라 조성 및 융합 확산 - 역기능 대응
글로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 해외교류 확대 □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로 산업 경제의 활력 회복 - 수출구조 혁신 - 유턴기업 유치

자료: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하이투자증권

<표 4>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4차 산업혁명 관련 실천 과제

국정전략	국정과제	실천 과제
<p>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p>	<p>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차 산업혁명 대응)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신설 및 범부처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계획 수립 ○ (생태계 조성) 지능정보 핵심기술 R&D, 인재양성 등에 집중 투자하고, ICT 신기술·서비스 시장진입이 원활하도록 규제 개선 추진 ○ (인프라 조성 및 융합 확산) 5G·IoT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데이터 개방 및 유통 활성화, 스마트홈·정밀의료 등 ICT융합 서비스 발굴·확산 ○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 소프트웨어 법체계 및 공공시장 혁신, 인재·기술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가장 잘하는 나라, 소프트웨어 기업하기 좋은 나라 실현 ○ (역기능 대응) AI 기반 사이버 보안 위협 대응체계 구축, 신정보격차 해소 계획 수립·시행,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 등 이용자 보호 강화
	<p>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 육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스마트카) 전기차·수소차 획기적 보급 확대, 자동차-ICT융합 플랫폼 구축 등 스마트카 개발 및 자율주행차 산업 육성 ○ (첨단기술 산업) 융복합 추진전략 마련, 반도체·디스플레이·탄소산업 등 4차 산업혁명 대응에 필요한 첨단 신소재·부품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능형 로봇, 3D프린팅, AR·VR, IoT가전, 스마트선박, 나노·바이오, 항공·우주 등 첨단기술 산업 육성을 위해 R&D 및 실증·인프라 구축 지원 ○ (제약·바이오 등) 핵심기술 개발, 인력양성, 사업화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을 통해 제약·바이오·마이크로의료로봇 등 의료기기 산업 성장 생태계 구축 ○ (자율협력주행)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인프라, 자율협력주행 커넥티드 서비스, 스마트도로 등을 구축하고 '20년 준자율주행차 조기 상용화 ○ (드론산업) 드론산업 활성화 지원 로드맵 마련('17년) 및 인프라 구축, 제도 개선, 기술개발, 융합생태계 조성 등 추진 ○ (표준·인증) 신속인증제 운영 활성화, 범부처 TBT대응지원 센터 운영, 신속표준제도 도입 등 신산업 표준·인증제도 혁신
	<p>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강화) 국가과학기술정책 자문·조정 기구 통합 및 과학기술총괄부처의 기능을 강화 - 과학기술총괄부처의 연구개발 관련 예산권한 강화 및 정책-예산-평가간 연계 강화 - 기초 원천 분야 연구개발은 과학기술총괄부처에서 통합 수행하고, 타부처는 특정 산업(기업) 수요 기반의 R&D로 역할 분담 ○ (행정 효율화) 각종 R&D 관리규정 및 시스템·서식 일원화와 간소화 추진, '19년부터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 본격 운영 ○ (소통 강화) 정부R&D 정보 제공 체계 개선으로 관련정보의 개방 확대, 국민참여 기반의 국민생활문제 해결 R&D 추진 ○ (해외교류 확대) 재외 동포 및 북한 과학기술인 교류 확대, 인류 공동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과학연구로 글로벌사회 국가 지위 향상
	<p>청년과학자와 기초연구 지원으로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연구 지원 확대)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 2배 확대, 연구과제 관리·평가제도 등의 개선을 통해 연구자 자율성 강화 - 역량 있는 연구자가 연구 단절 없이 연구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초 혁신 실험실' 및 '생애 기본 연구비' 지원 - 연구과제 특성을 반영해 차별화(성과중심/과정중중)된 평가체계 정립 ○ (연구환경 개선) 근로계약 체결, 적정임금 및 연구성과 보상기준 마련 등으로 청년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 - 박사후 연구원 등에 근로계약 체결 및 4대 보험 보장 의무화 - 중소기업 R&D 부서에 취업하는 청년 과학기술인 임금 지원 ○ (청년 과학기술인 육성) 실무형 R&D 연구기회 제공으로 R&D 역량을 제고하고, 연구산업 활성화를 통한 과학기술 일자리 확대 - 미취업 석·박사의 기업 연구과제 참여 지원, 과제기반 테뉴어 제도 도입 - 경력단절 여성 과학기술인과 산·학·연 기과 매칭, 대체인력 지원 등으로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 단절 방
	<p>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 육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생에너지) 소규모 사업자의 참여 여건 및 기업투자 여건 개선 등을 통해 '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달성 - 소규모 사업자의 안정적 수익 확보를 위한 전력 고정가격 매입제도 도입, 풍력 등 계획입지제도 도입, 신재생 이격거리 규제 개선 - RPS 의무비율을 '30년 28% 수준(현재 '23년 이후 10%)으로 상향 조정 ○ (에너지신산업) 친환경·스마트 에너지 인프라 구축, IoT 기반 신비즈니스 창출 - '20년까지 공공기관에 ESS 설치 의무화 및 지능형 계량 시스템 전국 설치 완료 ○ (에너지효율) 핵심분야별 (가정, 상업, 수송, 공공, 건물 등) 수요관리 강화, 미활용 열에너지 활용 활성화 등을 통해 저탄소·고효율 구조로 전환 - '18년에 주요 산업기기 에너지 최저효율제 도입, '20년에 공공부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및 국가 열지도 구축 ○ (에너지바우처) '18년에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에 중증 희귀질환자 가구 추가 등 에너지 소외계층 복지 지원 확대
<p>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로 산업 경제의 활력 회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 부흥) '17년에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제조업 부흥전략 수립, '18년까지 스마트 공장 인증제도 도입 및 금융지원 등 확대 - '22년까지 스마트 공장 2만개 보급·확산 ○ (주력산업 재편) 매년 50개 기업 사업재편 지원,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로 '19년까지 산업 전반으로 선제적 구조조정 확산 ○ (수출구조 혁신) '18년까지 국가 브랜드 전략과 산업·무역정책을 연계한 'Korean-Made 전략' 수립 및 맞춤형 지원 등 강화*로 수출기업화 촉진 * 한류 활용 해외마케팅, 소비재 선도기업 100개사 선정, 전문 무역상사를 활용한 중소·중견기업 수출 지원 강화, 중소·중견기업 무역보험 우대 등 ○ (유턴기업 유치) 신산업 및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외국인투자·유턴기업을 중점 유치하는 방향으로 '18년까지 관련 지원제도 개편 	

자료: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하이투자증권

■ 제4차 산업혁명을 대응하기 위한 3단계 계획

향후 5년간 제4차 산업혁명을 대응하기 위한 계획은 3단계로 나뉜다. 먼저 2018년까지 1단계 기간에는 제4차 산업혁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 구축에 집중한다. 즉, 4차 산업혁명위원회 주도 아래 5G 시범서비스, IoT 전용망 구축, ICT 신산업 규제 샌드박스 등으로 체질 개선부터 정비하겠다는 뜻이다.

이후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각 분야별 신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 시기에 5G 주파수를 공급하고 5G 통신 상용화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과 지능형 정책지원시스템 구축도 2단계 이행목표에 포함되는 부분이다.

2022년까지 마지막 3단계에는 본격적인 성과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구체적으로 공공과 민간 분야 ICT 융합서비스 발굴 목표를 총 50종으로 정했다. 지능정보 핵심기술 수준은 현재 선진국 대비 75% 선에서 90% 선으로 빠르게 따라잡는다는 계획이다. 소프트웨어 기술력도 강화해 글로벌 소프트웨어 전문기업도 만들어낸다는 목표다.

■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예정으로 범부처 종합대책 마련될 듯 ⇒ 중소형주 상승 모멘텀

지난 8월 16일 국무회의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심의/의결했으며 근시일안에 위원회 설치를 완료하여 2017년 말까지 제4차 산업혁명 대응 범부처 종합대책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에 따라 설치되는 기구로, 민/관위원 30명 이내로 구성되며 4차산업혁명에 따른 경제/사회 전반의 총체적 변화를 논의하고 국가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즉, 위원회는 각 분야 전문가로 최대 25명의 민간위원과 4개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장관 및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 등 5명의 정부위원으로 구성되며 민간위원은 젊고 혁신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을 대거 참여시킬 계획이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위촉한 민간전문가 1인이 맡고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 간사를 맡도록 했다.

그 동안 신정부가 출현할 때 마다 나타난 수많은 위원회들은 홍보성 이벤트 개최에만 여념이 없었으며, 무엇보다 부처간의 협업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는 범국가적 차원의 아젠다 설정 및 로드맵을 마련하여, 다수 부처가 관련되어 있는 새로운 정책과제를 통합하면서 어려운 규제개혁 추진 및 총괄조정을 수행하는 등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함에 따라 중소기업과 혁신 창업 기업 육성할 예정으로 연구 개발을 위해 기초연구에 장기 투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하여 민간의 부동자금을 벤처기업 지원으로 끌어 들일 수 있도록 엔젤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기술집약적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기존의 기술금융체계를 보다 발전시키는 한편 자본시장의 역할이 보다 강화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한편, 중소형주의 경우 정부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데, 문재인 정부의 신성장동력 정책은 제4차 산업혁명 이기 때문에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이 구체화 될 때 즉, 제4차 혁명위원회가 설치될 때 중소형주의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중소형주의 미래 성장동력 가치에 대하여 높은 밸류에이션 적용이 가능할 것이므로 관련 종목들의 주가 상승이 예상된다.

Ⅲ. 투자 유망 종목

지니뮤직(043610)

ISC(095340)

유니퀘스트(077500)

테크윙(089030)

디아이(003160)

한신기계(011700)

2017/09/18

지니뮤직(043610)

지니야 음악 틀어줘

NR

지주/ Mid-Small Cap

이상현 (2122-9198) value3@hi-ib.com

조경진 (2122-9209) kjcho@hi-ib.com

■ 지니 플랫폼 통한 음악 서비스 및 음원/음반 유통사업을 영위

동사는 자체 플랫폼 지니를 통하여 음악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음원/음반 유통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고객유형별 매출 비중은 B2B 67%, B2C 27%, 기타 6%이다.

한편, 주주는 KT 42.5%를 비롯하여, LG유플러스 15.0%, 기타 42.5%로 분포되어 있다.

■ 가격 인상 효과 및 LG유플러스와의 시너지 효과 본격화로 실적 턴어라운드 가속화 될 듯

올해 2분기 실적이 저조하였는데 이는 2016년도 소급정산 권리원가 및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 추가 반영 등으로 인하여 일회성 비용이 약 22억원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3분기에는 일회성 비용 기저효과 환경하에서 가격인상 효과가 반영되면서 흑자전환 뿐만 아니라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LG유플러스가 동사의 주주로 참여하면서 KT 고객에게만 적용되었던 다양한 B2B 상품과 혜택을 LG유플러스 고객에게도 확대되면서 매출증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분기를 거듭할수록 가격인상 효과 및 LG유플러스 시너지 효과 본격화로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제4차 산업혁명 시대 킬러 콘텐츠로서 확고하게 자리 잡을 듯

지난 1월 KT는 IPTV와 인공지능(AI)이 결합된 셋톱박스인 기가지니를 출시하여, 올해 50만대 이상의 판매를 목표로 삼고 있다. 스마트폰에서도 음원서비스가 킬러 콘텐츠로서 확고하게 자리잡은 것과 마찬가지로 음성인식 기반 AI서비스의 경우도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음원서비스가 킬러 콘텐츠로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클 것이다. 이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LG유플러스의 경우도 하반기에 기가지니와 유사한 스피커와 IPTV셋톱박스를 결합한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므로 동사에게 수혜가 예상된다. 즉, 인공지능(AI) 서비스 기기가 증가할수록 동사 콘텐츠의 활용도는 높아질 것이다.

한편, 동사와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서 음악서비스인 재규어 랜드로버 지니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곧 동사가 커넥티드카 산업에 진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스마트카에서도 음원서비스가 확실한 킬러 콘텐츠로 자리 잡으면서 성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액면가	500원
종가(2017/09/15)	4,985원

Stock Indicator

자본금	24.5십억원
발행주식수	4,919만주
시가총액	245십억원
외국인지분율	0.3%
배당금(2016)	-
EPS(2016)	197원
BPS(2016)	1,629원
ROE(2016)	12.9%
52주 주가	3,080~6,900원
60일평균거래량	380,645주
60일평균거래대금	1.9십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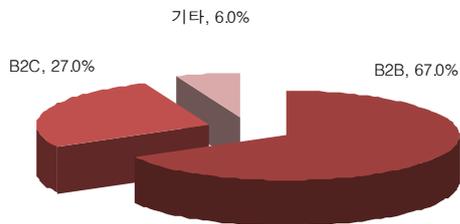
Price Trend



FY	매출액 (억원)	영업이익 (억원)	세전이익 (억원)	순이익 (억원)	지배주주순이익 (억원)	EPS (원)	PER (배)
2013	508	-22	-53	-51	-51	-141	-
2014	863	75	33	32	32	77	69.6
2015	892	19	35	34	34	81	54.2
2016	1,113	49	59	82	82	197	18.3
2017E	1,400	56	66	60	60	122	40.8
2018E	1,650	130	140	126	126	256	1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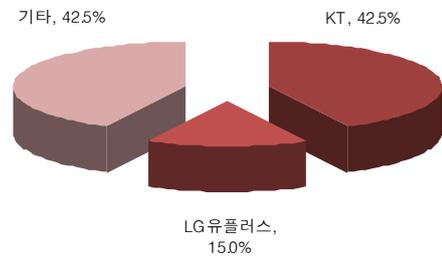
자료: 지니뮤직, 하이투자증권

<그림 8> 고객형태별 매출구성(2016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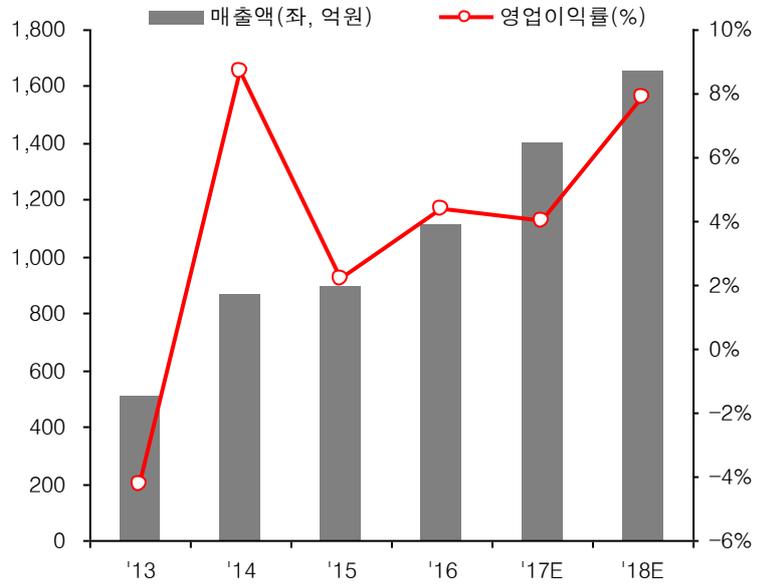
자료: 지니뮤직, 하이투자증권

<그림 9> 주주분포(2017년 7월 26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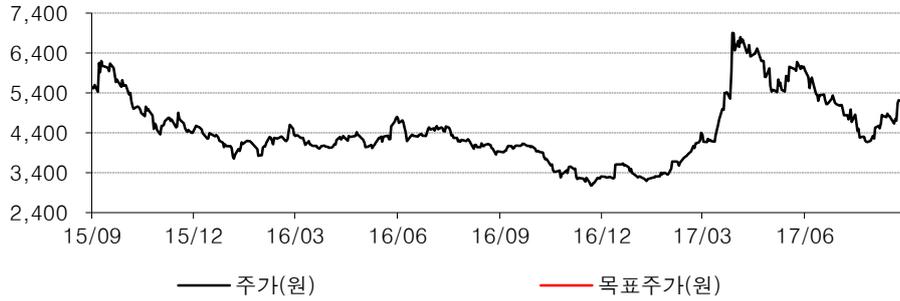
자료: 지니뮤직, 하이투자증권

<그림 10> 지니뮤직 실적 추이



자료: 지니뮤직, 하이투자증권

최근 2년간 투자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추이(지니뮤직)



일자	투자의견	목표주가(원)	목표주가 대상시점	괴리율	
				평균주가대비	최고(최저)주가대비
2017-08-21	NR				

Compliance notice

당 보고서 공표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 ▶ 회사는 해당 종목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금융투자분석사와 그 배우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 회사는 6개월간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 주관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이상현, 조경진](#))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1. 종목추천 투자등급 (추천일 기준 증가대비 3등급) 종목투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일 증가대비 해당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2017년 7월 1일부터 적용)

- Buy(매수): 추천일 증가대비 +15%이상
- Hold(보유): 추천일 증가대비 -15% ~ 15% 내외 등락
- Sell(매도): 추천일 증가대비 -15%이상

2. 산업추천 투자등급 (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하는 것임)

- Overweight(비중확대), - Neutral (중립), - Underweight (비중축소)

하이투자증권 투자비용 등급 공시 2017-06-30 기준

구분	매수	중립(보유)	매도
투자의견 비율(%)	89.2%	10.8%	-

2017/09/18

ISC(095340)

소켓 실적 턴어라운드에 자율주행 성장성을 더하다

■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소켓 전문제조업체

동사는 지난 2001년에 설립된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에 필요한 소켓 등을 제조하는 업체이다. 반도체 테스트 소켓이란 삼성전자 등에서 개발, 제조되어 스마트폰, 자동차, IT, BT, 각종 가전제품 등에 사용되는 반도체 IC의 Final 테스트시 양품 또는 불량인지를 검사하는 데 사용되는 소모성 부품으로 신규 반도체 IC 개발시 테스트용 컨택터로 동반하여 개발되어야 하는 소량 다품종의 제품이다. 동사는 실리콘 러버타입 소켓위주로 생산하며,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체 뿐만 아니라 A사, Q사, M사, I사, S사 등 해외 대형 반도체업체들을 주요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어서 해외 매출비중이 70%에 이르고 있다.

한편, 주주는 정영배 36.4%를 비롯하여, 정영량 외 특수관계인 3.1%, 국민연금공단 5.0%, 미래에셋자산운용 5.0%, Grandeur Peak Global Advisors 4.7%, 자사주 1.5%, 기타 44.3% 등으로 분포되어 있다.

■ 소켓 실적 턴어라운드에 자율주행 성장성을 더하다

반도체 수요 증가로 인하여 NAND, LPDDR4x, CPU향 테스트 소켓 매출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테스트 항목 증가 및 High Speed 등으로 인한 가격상승 요인과 더불어 자회사 JMT의 구조조정 효과 등도 실적 턴어라운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단계별 적용 확대 및 5G 통신칩 도입 등으로 인하여 향후 실적 증가세는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동사의 주력 자회사인 아이솔루션은 2008년 설립되어 카메라 기반 ADAS 생산장비 테스트 솔루션 등을 보유하고 있다. 후방 카메라 등 운전보조용 카메라와 달리 자율주행용 카메라는 인명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제품 사양 및 품질에 대한 높은 신뢰도가 요구된다. 차량용 카메라는 모바일용 카메라에 비해 테스트 환경이 매우 혹독하고 공정 비용이 비싸 장비의 평균판매단가가 높다.

아이솔루션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모바일용 솔루션을 이용한 카메라 기반 ADAS 생산장비 테스트 솔루션 등에 대하여 모바일로부터 납품할 수 있는 인증을 받았다. 현대차 EQ900에만 납품되었던 ADAS 관련 제품이 향후에는 쏘나타, 산타페 등의 차종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를 거듭할수록 아이솔루션의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속화 될 것이다.

지주/ Mid-Small Cap

이상현 (2122-9198) value3@hi-ib.com

조경진 (2122-9209) kjcho@hi-ib.com

NR

액면가	500원
종가(2017/09/15)	26,950원

Stock Indicator

자본금	6.8십억원
발행주식수	1,360만주
시가총액	367십억원
외국인지분율	10.8%
배당금(2016)	162원
EPS(2016)	723원
BPS(2016)	11,109원
ROE(2016)	6.7%
52주 주가	12,900~27,450원
60일평균거래량	123,761주
60일평균거래대금	3.1십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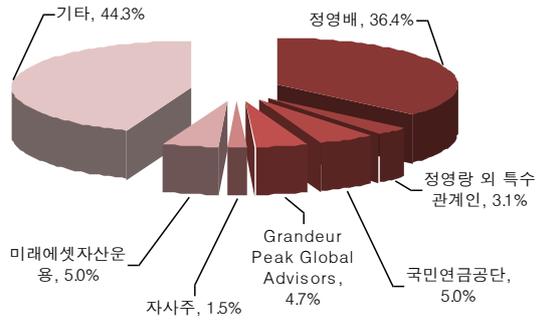
Price Trend



FY	매출액 (억원)	영업이익 (억원)	세전이익 (억원)	순이익 (억원)	지배주주순이익 (억원)	EPS (원)	PER (배)
2013	568	203	148	105	104	937	12.0
2014	740	172	140	81	105	929	26.8
2015	959	158	107	45	106	820	33.3
2016	936	108	120	88	98	723	23.0
2017E	1,200	300	295	223	238	1,750	15.4
2018E	1,450	380	370	280	290	2,132	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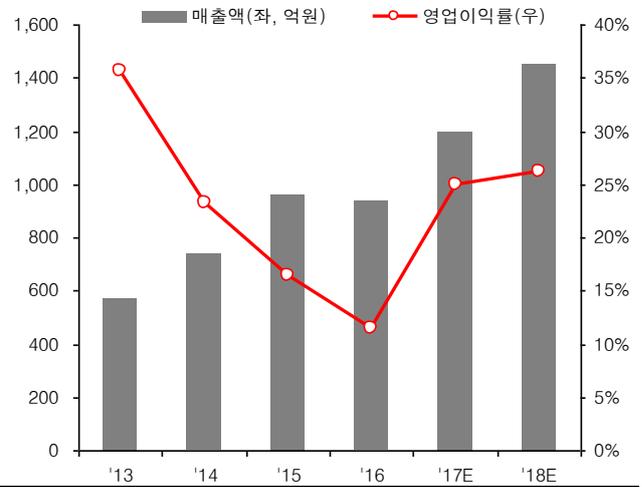
자료: ISC, 하이투자증권

<그림 11> 주주분포(2017년 9월 1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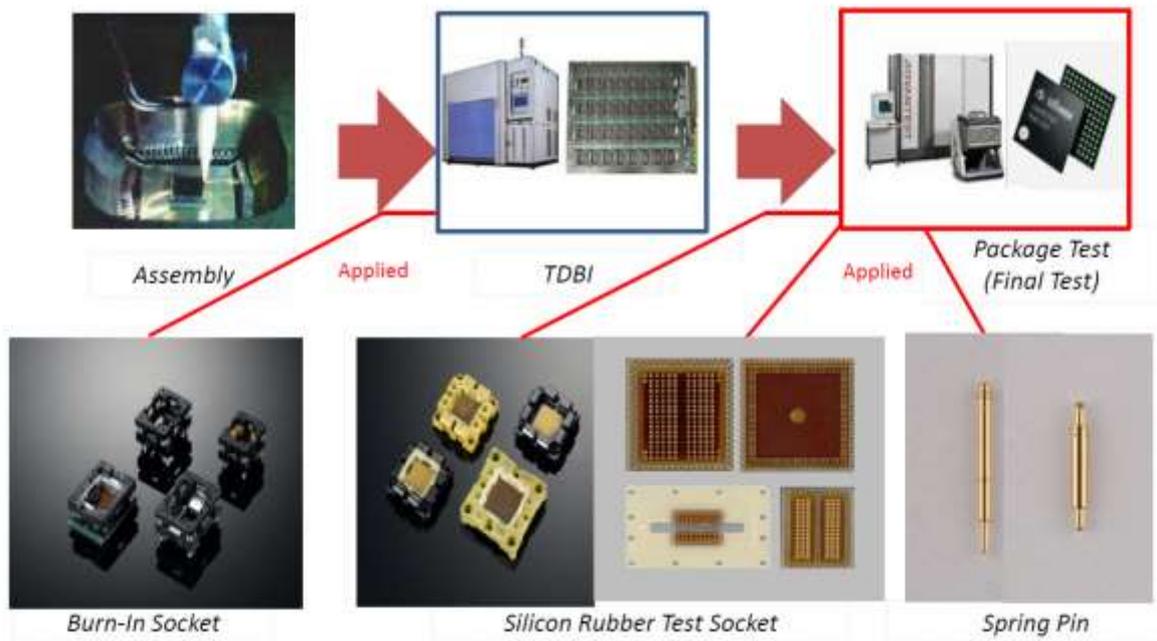
자료: ISC, 하이투자증권

<그림 12> ISC 실적 추이



자료: ISC, 하이투자증권

<그림 13> 사업영역



자료: ISC, 하이투자증권

<그림 14> 아이솔루션 사업영역

HYUNDAI KIA MOTORS | HYUNDAI MOBIS | MANDO Cooperation Development & Qualification

Test Equipment for R&D

- Camera Performance Test Equipment
- Durability & Reliability Test Equipment
- Embedded System
- Algorithm Performance Test Equipment
- Test Equipment by NHTSA and Euro NCAP Guideline

Mass Production Equipment by Mobieye Guideline

Final Test Equipment

Assembly & Test Equipment

- I Group Work for R&D
 1. Camera Module Structure Optimization
 2. Evaluation & Analysis: DV & PV
 3. Evaluation & Analysis Guideline
 - Condition & Process
 - Method & Solution
 - Management Criteria
- II. Group Work for Mass Production
 1. Mass Production Line Optimization
 2. Hybrid Glue Selection & Verification
 3. Camera Module Assembly Status Verification
- 3. Mass Production Guideline
 - Mass Production Process
 - Management Criteria

Automotive Camera **Camera Based ADAS**

Automaker	 HYUNDAI · KIA MOTORS
Supplier	HYUNDAI MOBIS MANDO SL Corporation LG Electronics
Manufacturer	 LG Innotek MCNEX MHE Mando Hella Electronics Corp.

Proven Total Solution

Supplier Manufacturer

Automaker

자료: 아이솔루션, 하이투자증권

최근 2년간 투자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추이(ISC)



일자	투자의견	목표주가(원)	목표주가 대상시점	괴리율	
				평균주가대비	최고(최저)주가대비
2017-09-18	NR				

Compliance notice

당 보고서 공표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 ▶ 회사는 해당 종목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금융투자분석사와 그 배우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 회사는 6개월간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 주관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이상현, 조경진\)](#)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1. 종목추천 투자등급 (추천일 기준 증가대비 3등급) 종목투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일 증가대비 해당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2017년 7월 1일부터 적용)

- Buy(매수): 추천일 증가대비 +15%이상
- Hold(보유): 추천일 증가대비 -15% ~ 15% 내외 등락
- Sell(매도): 추천일 증가대비 -15%이상

2. 산업추천 투자등급 (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하는 것임)

- Overweight(비중확대), - Neutral (중립), - Underweight (비중축소)

하이투자증권 투자비용 등급 공시 2017-06-30 기준

구분	매수	중립(보유)	매도
투자의견 비율(%)	89.2%	10.8%	-

2017/09/18

유니퀘스트 (077500)

이제부터 자회사들이 효자 효녀

■ 비메모리 반도체 유통업체

동사는 지난 1993년에 설립되어 비메모리 반도체를 수입하여 국내 IT업체에 유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주요 자회사로는 드림텍(지분율 43.5%, 스마트폰용 모듈, 차량용 LED 모듈 제조 업체), PLK테크놀로지(56.4%, 차량용 ADAS 솔루션 업체) 등이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전방산업별 매출비중을 살펴보면 디지털가전 26.6%, 산업용 22.5%, 무선단말기 16.2%, 통신기기 및 네트워크 16.2%, 자동차전장 16.2%, 컴퓨터 2.2%, 기타 0.1% 등이다.

한편, 주주는 임창완 44.3%를 비롯하여, 이혜숙 외 특수관계인 2.1%, 신정옥 7.4%, 자사주 1.6%, 기타 44.6% 등으로 분포되어 있다.

■ 드림텍 꿈이 이루어 진다

동사의 주력 자회사인 드림텍은 모바일 인쇄회로기판 조립품(PBA) 제조업체로 지문인식 센서 모듈, 자동차 LED 모듈, 사물인터넷(IoT) 센서 등에 투자하면서 제품 영역을 확대하였다.

올해의 경우 지문인식 모듈 확대 적용 및 OLED 디스플레이 PBA 사업 확대 등으로 인하여 실적 턴어라운드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드림텍은 에이치마이크로(HMicro)와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심전도 검사용 무선 바이오센서 패치를 개발 중에 있다. 수술 및 검진의 무선화를 실현함으로써 간편하고 청결하게 의료 행위가 진행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술에 있어서 IT 장비를 이용해 수치화, 데이터화가 가능할 전망이다.

■ PLK테크놀로지 ADAS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성장성 부각될 듯

동사의 또 다른 주력 자회사인 PLK테크놀로지는 현대차 사내벤처로 출발한 업체로 첨단 운전보조시스템(ADAS)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PLK테크놀로지는 현대차 및 기아차에 차선이탈경보장치(LDW)를 공급한 적이 있으며, 금호고속과 대우버스에 앞차 추돌경보장치(FCW)를 공급하기도 했다. 또한 PLK테크놀로지는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는 첨단안전장치 장착 시범사업자로 모빌아이와 함께 선정되었다.

향후 해외 시장 중 중국을 공략할 예정으로 ADAS 핵심기술인 알고리즘 기술을 통하여 모빌아이처럼 ADAS Chip을 자체 생산하고 있으므로 향후 중국 등에서 성장성이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지주/ Mid-Small Cap

이상현 (2122-9198) value3@hi-ib.com

조경진 (2122-9209) kjcho@hi-ib.com

NR

액면가	500원
종가(2017/09/15)	7,450원

Stock Indicator

자본금	13.5십억원
발행주식수	2,705만주
시가총액	202십억원
외국인지분율	55.0%
배당금(2016)	80원
EPS(2016)	160원
BPS(2016)	6,706원
ROE(2016)	2.5%
52주 주가	4,650~8,560원
60일평균거래량	223,759주
60일평균거래대금	1.7십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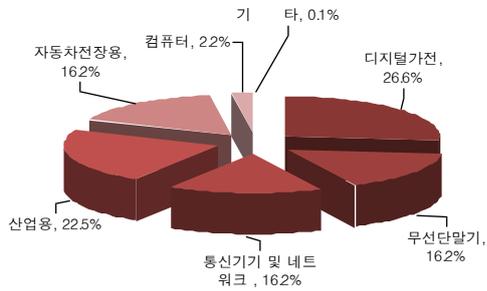
Price Trend



FY	매출액 (억원)	영업이익 (억원)	세전이익 (억원)	순이익 (억원)	지배주주순이익 (억원)	EPS (원)	PER (배)
2013	2,112	55	323	272	270	1,008	7.0
2014	2,823	103	192	155	154	570	8.6
2015	2,960	90	19	23	23	86	44.1
2016	2,636	78	46	28	43	160	45.9
2017E	2,403	40	200	160	128	473	15.8
2018E	2,705	83	248	188	168	621	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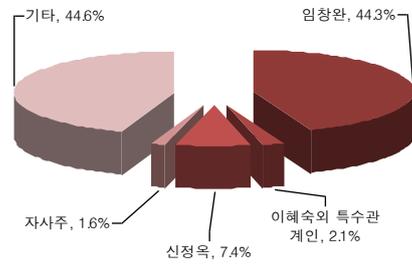
자료: 유니퀘스트, 하이투자증권

<그림 15> 전방산업별 매출구성(2017년 상반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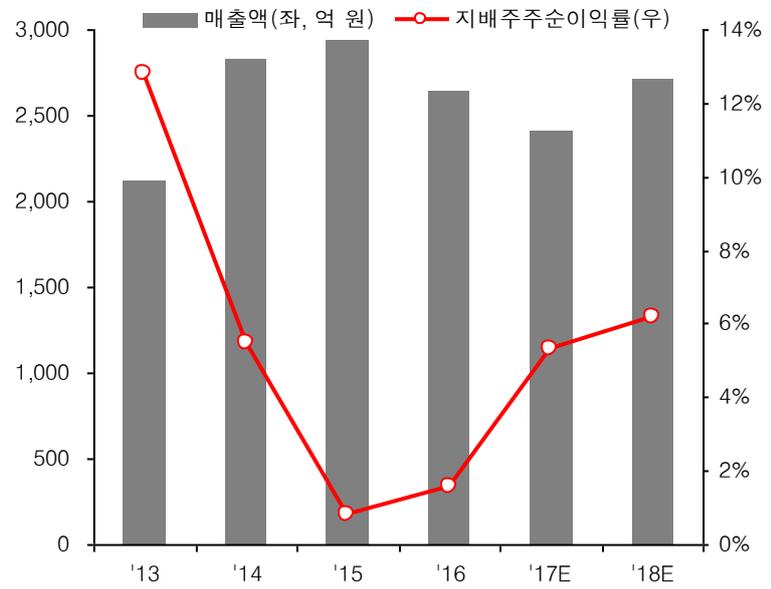
자료: 유니퀘스트, 하이투자증권

<그림 16> 주주분포(2017년 6월 30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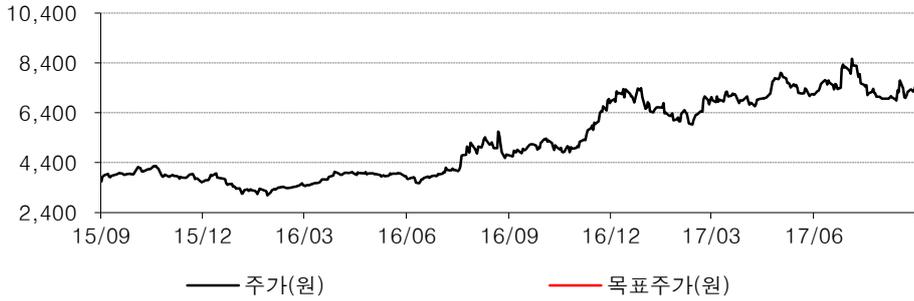
자료: 유니퀘스트, 하이투자증권

<그림 17> 유니퀘스트 실적 추이



자료: 유니퀘스트, 하이투자증권

최근 2년간 투자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추이(유니퀘스트)



일자	투자의견	목표주가(원)	목표주가 대상시점	괴리율	
				평균주가대비	최고(최저)주가대비
2017-09-18	NR				

Compliance notice

당 보고서 공표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 ▶ 회사는 해당 종목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금융투자분석사와 그 배우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 회사는 6개월간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 주관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이상현, 조정진\)](#)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1. 종목추천 투자등급 (추천일 기준 증가대비 3등급) 종목투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일 증가대비 해당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2017년 7월 1일부터 적용)

- Buy(매수): 추천일 증가대비 +15%이상
- Hold(보유): 추천일 증가대비 -15% ~ 15% 내외 등락
- Sell(매도): 추천일 증가대비 -15%이상

2. 산업추천 투자등급 (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하는 것임)

- Overweight(비중확대), - Neutral (중립), - Underweight (비중축소)

하이투자증권 투자비용 등급 공시 2017-06-30 기준

구분	매수	중립(보유)	매도
투자의견 비율(%)	89.2%	10.8%	-

2017/09/18

테크윙 (089030)

전방산업 호조 및 자회사 실적 점프업

■ 메모리 반도체 테스트 핸들러 시장점유율 세계 1위 업체

동사는 지난 2002년에 설립되어 반도체 후공정 검사장비인 테스트 핸들러 및 주변기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반도체 테스트 핸들러는 반도체 후공정에서 패키징을 마친 칩들을 검사장비에 이송해 전기적인 특성검사를 실시하여 양질의 제품과 불량품을 분류해 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동사는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샌디스크 등의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13년 디스플레이 광 평가시스템 장비업체인 이엔씨테크놀로지를 인수하면서 디스플레이 장비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였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매출비중을 살펴보면 핸들러 54.7%, C.O.K(Change of kit) 24.7%, 디스플레이 평가장비 6.1%, 기타 14.5%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주주는 나윤성 13.5%를 비롯하여 전인구 9.4%, 가치투자자문 11.0%, 미래에셋자산운용 5.9%, 신영자산운용 5.1%, 자사주 0.7%, 기타 54.4% 등으로 분포되어 있다.

■ 전방산업 호조로 메모리 테스트 핸들러 및 C.O.K 매출성장 본격화

지난해 하반기 주요 고객사들의 투자지연 및 축소로 인하여 실적이 부진(상고하자)하였으나, 올해 1분기부터 증가세로 돌아섬에 따라 지속적인 실적 확대가 예상된다. 즉, 기존 낸드 플래시 제조사들의 현재 진행 중인 증설라인 대규모 양산에 따른 추가 투자로 상당한 장비 공급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C.O.K(Change of kit)는 핸들러 내의 검사환경을 조성하는 소모성 키트로 종류가 다른 디바이스를 검사하기 위해서는 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핸들러 누적 설치대수 증가에 따라 C.O.K 매출도 상승하게 된다. 한편 내년부터는 중국 기업들의 메모리 반도체 투자 본격화에 따른 반도체 후공정 투자 수혜도 기대된다.

■ 자회사 실적 점프업

동사의 주력 자회사인 이엔씨테크놀로지의 경우 OLED 디스플레이 기업에 모듈 공정용 외관검사장비가 양산 채택되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실적 향상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실적의 점프업이 가능할 것이다. 모듈 공정용 외관검사장비(모듈 외관의 파손 및 스크래치 유무확인)는 사람이 육안으로 검사하고 있던 검사 신뢰성 문제로 대체되는 자동검사장비로서 향후 적용 라인 확대가 가능해 지면서 이엔씨테크놀로지의 수혜가 기대된다.

지주/ Mid-Small Cap

이상현 (2122-9198) value3@hi-ib.com

조경진 (2122-9209) kjcho@hi-ib.com

NR

액면가	500원
종가(2017/09/15)	17,100원

Stock Indicator

자본금	9.1십억원
발행주식수	1,808만주
시가총액	309십억원
외국인지분율	7.0%
배당금(2016)	220원
EPS(2016)	842원
BPS(2016)	6,378원
ROE(2016)	6.1%
52주 주가	11,050~17,850원
60일평균거래량	206,177주
60일평균거래대금	3.1십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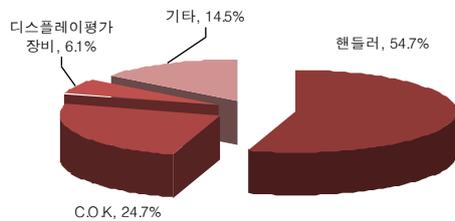
Price Trend



FY	매출액 (억원)	영업이익 (억원)	세전이익 (억원)	순이익 (억원)	지배주주순이익 (억원)	EPS (원)	PER (배)
2013	918	95	95	89	89	541	12.9
2014	1,124	119	83	74	79	478	16.6
2015	1,360	233	214	167	167	969	9.4
2016	1,420	231	181	146	148	842	16.4
2017E	2,000	340	370	296	290	1,603	11.3
2018E	2,450	450	420	320	315	1,742	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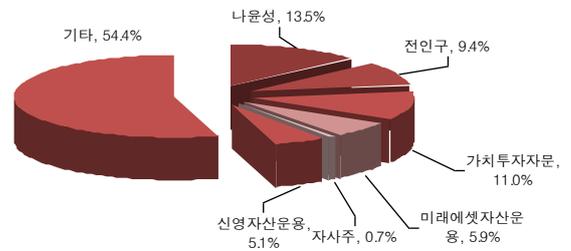
자료: 테크윙, 하이투자증권

<그림 18> 매출구성(2017년 상반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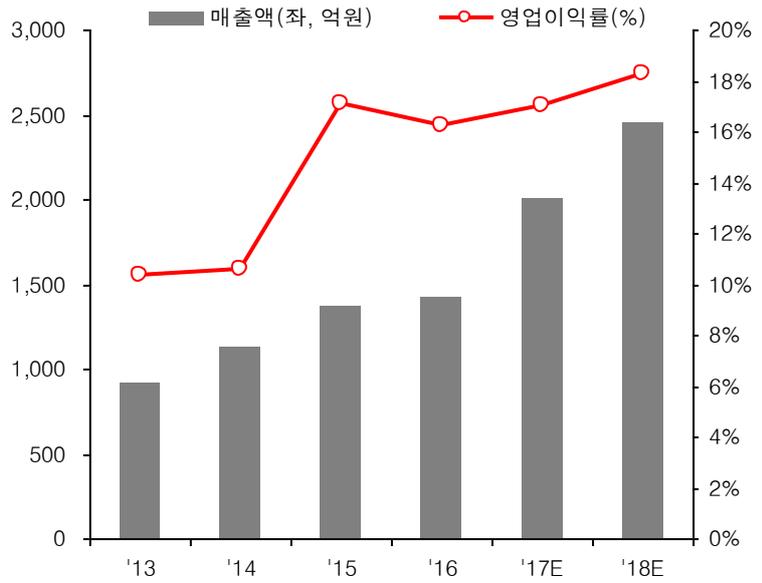
자료: 테크윙, 하이투자증권

<그림 19> 주주분포(2017년 8월 3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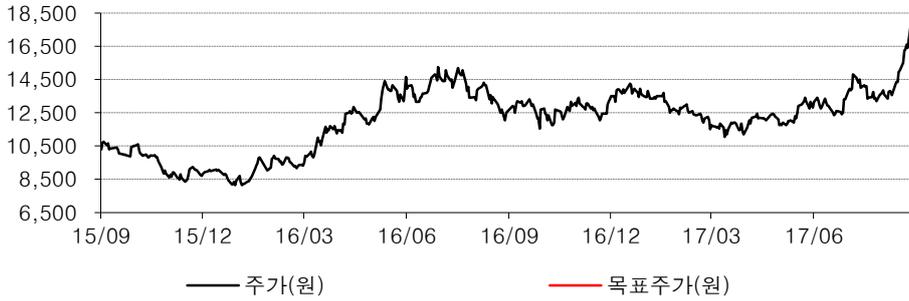
자료: 테크윙, 하이투자증권

<그림 20> 테크윙 실적 추이



자료: 테크윙 하이투자증권

최근 2년간 투자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추이(테크윙)



일자	투자의견	목표주가(원)	목표주가 대상시점	괴리율	
				평균주가대비	최고(최저)주가대비
2017-09-18	NR				

Compliance notice

당 보고서 공표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 ▶ 회사는 해당 종목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금융투자분석사와 그 배우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 회사는 6개월간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 주관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이상현, 조경진\)](#)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1. 종목추천 투자등급 (추천일 기준 증가대비 3등급) 종목투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일 증가대비 해당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2017년 7월 1일부터 적용)

- Buy(매수): 추천일 증가대비 +15%이상
- Hold(보유): 추천일 증가대비 -15% ~ 15% 내외 등락
- Sell(매도): 추천일 증가대비 -15%이상

2. 산업추천 투자등급 (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하는 것임)

- Overweight(비중확대), - Neutral (중립), - Underweight (비중축소)

하이투자증권 투자비용 등급 공시 2017-06-30 기준

구분	매수	중립(보유)	매도
투자의견 비율(%)	89.2%	10.8%	-

2017/09/18

디아이 (003160)

싸이는 가고 실적이 온다

■ 반도체 검사장비 전문 제조업체

동사는 지난 1961년에 설립된 반도체 검사장비 전문 제조업체로서, Burn-In Tester 및 Burn-In Board 등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프론티어(지분율 73.0%, Wafer Level Package 검사장비), 두성산업(지분율 100.0%, 전자파 차폐체(EMC) 제조), 디아이엔바이오(지분율 86.5%, 수(水)처리 관련 환경사업) 등이 동사의 연결 자회사이다.

최근 3개년 평균 사업부문별 매출비중을 살펴보면 반도체 검사장비 68.1%, 전자부품 19.8%, 환경 11.7%, 기타 0.4% 등이다.

한편, 주주는 박원호 대표이사 10.0%를 비롯하여, 박원덕 부회장 10.9%, 이애숙 3.8%, 자사주 9.0%, 기타 66.3% 등으로 분포되어 있다.

■ 자회사 디지털프론티어 매출 증가 본격화 될 듯

동사의 주력 자회사인 디지털프론티어의 경우 주요 매출처가 SK하이닉스인데, SK하이닉스의 대규모 투자로 인하여 향후 매출 증가가 예상된다.

무엇보다 최근 NAND 고속 Burn-In Tester 양산 승인을 받음에 따라 올해 하반기 매출증가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실적이 점프업 될 것으로 기대된다. 즉, 2016년 매출이 165억원에서 2017년에는 275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에는 수주증가 본격화로 급격한 매출상승이 기대된다.

■ 전방산업 호조로 수주증가 가능할 듯

동사 Burn-In Tester 등의 주요 고객사는 삼성전자로 대규모 메모리 설비투자에 따른 후공정 및 테스트라인 증설로 인하여 향후 수주증가가 기대된다.

특히 신규공장 가동에 따른 생산량 증가로 인하여 테스트라인 증설 수요가 증가하면서 내년 수주증가가 기대된다.

지주/ Mid-Small Cap

이상현 (2122-9198) value3@hi-ib.com

조경진 (2122-9209) kjcho@hi-ib.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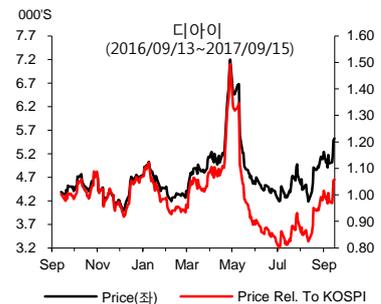
NR

액면가	500원
종가(2017/09/15)	5,500원

Stock Indicator

자본금	17.2십억원
발행주식수	3,150만주
시가총액	173십억원
외국인지분율	4.2%
배당금(2016)	50원
EPS(2016)	32원
BPS(2016)	3,769원
ROE(2016)	0.9%
52주 주가	3,975~7,180원
60일평균거래량	477,633주
60일평균거래대금	2.3십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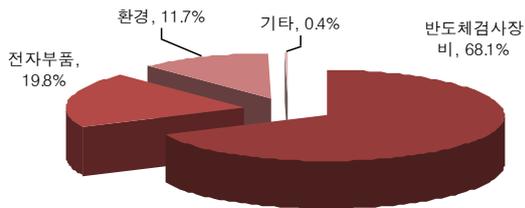
Price Trend



FY	매출액 (억원)	영업이익 (억원)	세전이익 (억원)	순이익 (억원)	지배주주순이익 (억원)	EPS (원)	PER (배)
2013	1,069	70	38	27	25	78	129.5
2014	1,340	88	55	32	30	95	72.3
2015	1,055	15	13	14	14	45	142.5
2016	1,097	55	24	17	10	32	147.7
2017E	1,515	145	148	118	102	324	16.9
2018E	2,030	300	310	248	200	635	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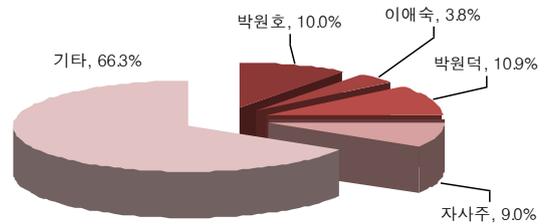
자료: 디아이, 하이투자증권

<그림 21> 매출구성(최근 3개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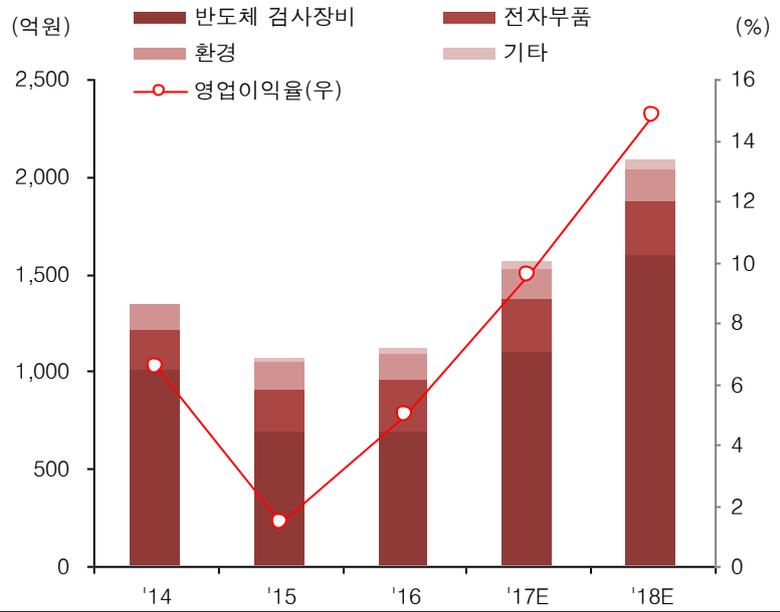
자료: 디아이, 하이투자증권

<그림 22> 주주분포(2017년 6월 30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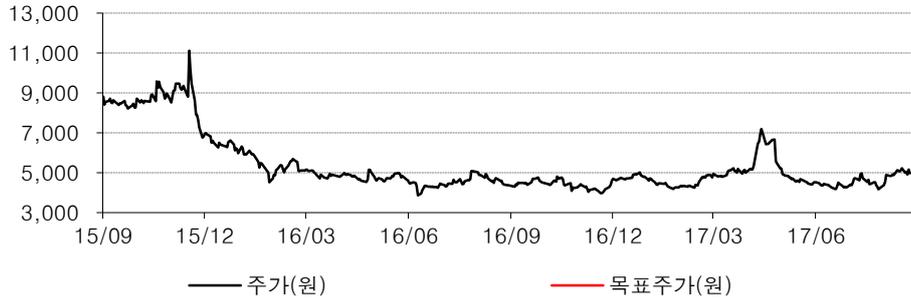
자료: 디아이, 하이투자증권

<그림 23> 디아이 실적 추이



자료: 디아이, 하이투자증권

최근 2년간 투자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추이(다이아)



일자	투자의견	목표주가(원)	목표주가 대상시점	괴리율	
				평균주가대비	최고(최저)주가대비
2017-09-18	NR				

Compliance notice

당 보고서 공표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 ▶ 회사는 해당 종목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금융투자분석사와 그 배우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 회사는 6개월간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 주관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이상현, 조경진\)](#)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1. 종목추천 투자등급 (추천일 기준 증가대비 3등급) 종목투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일 증가대비 해당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2017년 7월 1일부터 적용)

- Buy(매수): 추천일 증가대비 +15%이상
- Hold(보유): 추천일 증가대비 -15% ~ 15% 내외 등락
- Sell(매도): 추천일 증가대비 -15%이상

2. 산업추천 투자등급 (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하는 것임)

- Overweight(비중확대), - Neutral (중립), - Underweight (비중축소)

하이투자증권 투자비용 등급 공시 2017-06-30 기준

구분	매수	중립(보유)	매도
투자의견 비율(%)	89.2%	10.8%	-

2017/09/18

한신기계 (011700)

공장자동화 수혜 및 주주친화정책 강화

■ 공기 압축기(Air Compressor) 국내 1위 업체

동사는 1969년 설립된 공기압축기시장 국내 1위 업체다. 공기압축기(Air Compressor)는 대기 중에 있는 공기를 빨아들여 밀폐된 공간 내에서 큰 힘으로 압축하는 것으로 전기와 마찬가지로 전 산업에 필수적인 동력원으로 사용된다. 공기압축기 국내 시장규모는 약 2,000억원 정도로 추산되며, 2015년 기준으로 동사가 31%로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 동력원으로서 공기압축기 수요 증가로 공장자동화 수혜 가능할 듯

공기압축기는 각 공장에서 전반적으로 사용된다. 압축공기는 취급이 편리하기 때문에 기계공업, 토목건축, 기타 기계공구를 사용하는 모든 산업에 사용될 뿐만 아니라 화학공업, 제철소 등의 프로세스에 적용되고 있다. 또한 최근 환경예의 기여, 깨끗한 공기, 저 소음의 설비를 요구하는 제약, 전자, 식품산업을 위시한 전 산업계의 추세에 따라 공기압축기 역시 예외 없이 증가하는 공기를 배출하기 위하여 Oilless 공기압축기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한편, 공장이 자동화 되기 위해서는 동력원이 필요한데, 동력발생의 간편성, 저장의 용이성, 안전성 등으로 공기압축기의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부에서 스마트 공장 지원사업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장점유율 1위 업체인 동사에게 수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주친화정책 강화 될 듯

동사의 주주는 최영민 대표이사 18.6%를 비롯하여 정혜숙 외 특수관계인 2.3%, STERLING GRACE INTERNATIONAL LCC 16.6%, 자사주 2.0%, 기타 60.5% 등으로 분포되어 있다. STERLING은 조세피난처인 케이맨제도에 있는 미국계 투자회사로 2015년 동사 지분을 5% 사들인 뒤 16.6%까지 지분을 늘렸을 뿐만 아니라 올해 들어서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가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지분경쟁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주친화정책 강화로 경영권 위협에서 탈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동사는 주주친화정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주당 배당금을 65원 (YoY+44.4%)으로 높였다. 해를 거듭할수록 주주친화정책이 강화로 주당 배당금이 높아지면서 동사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주/ Mid-Small Cap

이상현 (2122-9198) value3@hi-ib.com

조경진 (2122-9209) kjcho@hi-ib.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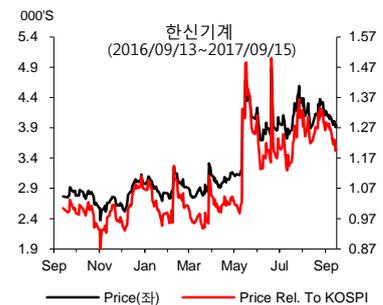
NR

액면가	500원
종가(2017/09/15)	3,925원

Stock Indicator

자본금	16.2십억원
발행주식수	3,245만주
시가총액	127십억원
외국인지분율	21.0%
배당금(2016)	65원
EPS(2016)	190원
BPS(2016)	2,394원
ROE(2016)	8.3%
52주 주가	2,360~4,885원
60일평균거래량	1,818,037주
60일평균거래대금	7.6십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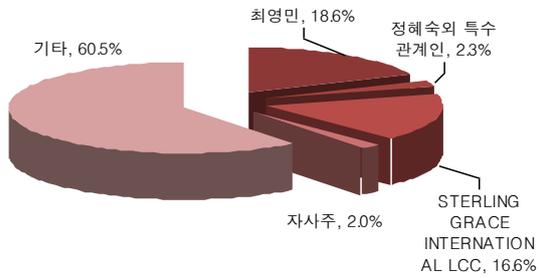
Price Trend



FY	매출액 (억원)	영업이익 (억원)	세전이익 (억원)	순이익 (억원)	지배주주순이익 (억원)	EPS (원)	PER (배)
2013	706	71	77	63	63	195	6.4
2014	653	77	86	66	66	204	7.8
2015	627	75	79	63	63	194	12.3
2016	627	87	89	62	62	190	15.7
2017E	650	90	93	74	74	228	17.2
2018E	730	105	108	86	86	265	1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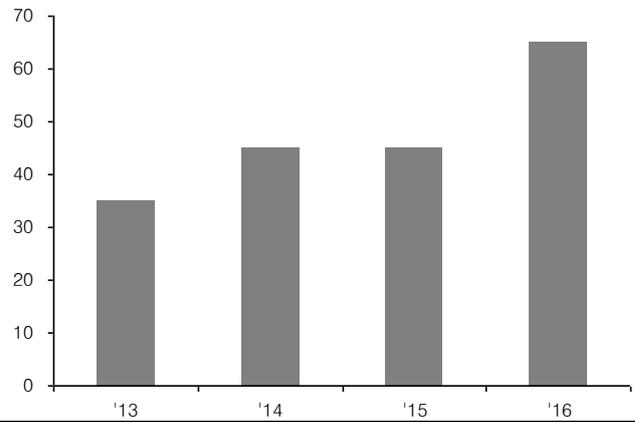
자료: 한신기계, 하이투자증권

<그림 24> 주주분포(2017년 6월 30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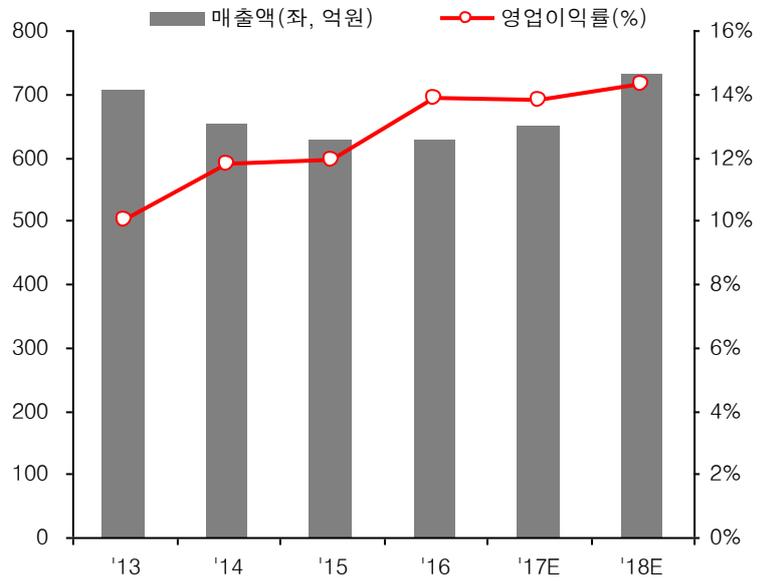
자료: 한신기계, 하이투자증권

<그림 25> 주당 배당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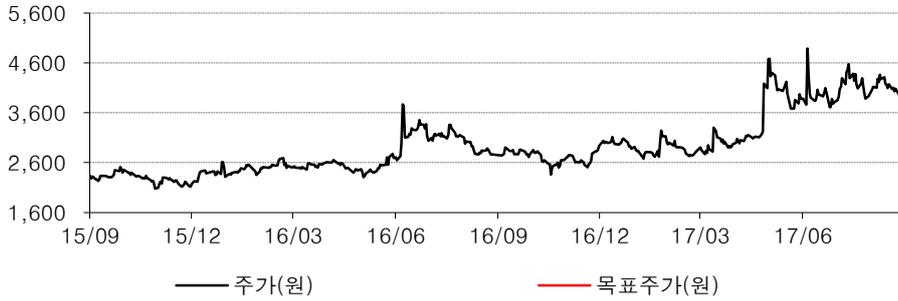
자료: 한신기계, 하이투자증권

<그림 26> 한신기계 실적 추이



자료: 한신기계, 하이투자증권

최근 2년간 투자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추이(한신기계)



일자	투자의견	목표주가(원)	목표주가 대상시점	괴리율	
				평균주가대비	최고(최저)주가대비
2017-09-18	NR				

Compliance notice

당 보고서 공표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 ▶ 회사는 해당 종목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금융투자분석사와 그 배우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 회사는 6개월간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 주관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이상현, 조정진\)](#)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1. 종목추천 투자등급 (추천일 기준 증가대비 3등급) 종목투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일 증가대비 해당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2017년 7월 1일부터 적용)

- Buy(매 수): 추천일 증가대비 +15%이상
- Hold(보유): 추천일 증가대비 -15% ~ 15% 내외 등락
- Sell(매도): 추천일 증가대비 -15%이상

2. 산업추천 투자등급 (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하는 것임)

- Overweight(비중확대), - Neutral (중립), - Underweight (비중축소)

하이투자증권 투자비용 등급 공시 2017-06-30 기준

구분	매수	중립(보유)	매도
투자의견 비율(%)	89.2%	10.8%	-

